POLICY BRIEFING
ISSUE 21 / 2025. 7.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연구자료
연구교육 2025-10-111

2024 통계로 보는 KOICA

들어가며

지난 4월 16일, OECD 개발협력국(DCD, Development Co-operation Directorate)은 2024년 ODA 잠정 실적을 발표하였다. OECD는 공여국 간 ODA 실적을 국제 기준에 따라 비교·집계하기 위해 공여국 보고시스템(Creditor Reporting System, CRS) OECD CRS[1]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각 공여국은 지원 대상국, 분야, 자금 형태, 사업 목적과 내용, 집행 금액 등 세부 정보를 제출한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OECD는 단순한 금액 집계를 넘어, 글로벌 개발재원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비교할 수 있는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잠정 실적에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회원국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CRS에 실적을 보고하고 있는 DAC 비회원국[2], 다자개발은행(ADB, 세계은행 등), 그리고 UN 기구 등 국제기구의 실적도 포함되어 있다. OECD는 매년 4월 전년도 ODA 잠정 실적을 발표하고, CRS 통계 규칙 준수 여부뿐 아니라, CRS 목적코드, 정책 마커, SDGs 입력 현황 등 모든 항목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공여국에 보완을 요청하여 최종적으로 정제된 통계를 이듬해 1월 확정한다[3]. 한국 역시 OECD DAC 회원국으로서 이와 같은 OECD 통계 집계 절차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 ODA 실적 집계를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은 KOICA, 수출입은행을 비롯해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다양한 집행기관의 실적을 취합하고 이를 외교부를 통해 OECD에 제출하고 있다.

2024년 국제 ODA 실적 동향

2025년 4월 OECD가 발표한 잠정 통계에 따르면, 2024년 ODA 총액은 실질(real terms) 기준[4] 증여등가액[5]으로 약 2,121억 달러로 집계되었다. 이는 전년도 2,237억 달러 대비 7.1% 감소한 수치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이어졌던 5년 연속의 증가세가 처음으로 반전된 사례다. 2024년 ODA 총액 감소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양자 ODA 및 인도적 지원 축소가 주요하게 작용하였다. DAC 회원국의 수원국 정부에 대한 양자 ODA는 전년 대비 5.8% 감소하였으며, 이 중 우크라이나에 대한 양자 ODA는 155억 달러로 16.7% 줄어들었다. 인도적 지원에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18억 달러로 감소하며 전년 대비 43% 줄었고, 이러한 감소는 전체 인도적 지원 규모가 242억 달러로 전년 대비 9.6% 감소하는 데에도 주요하게 작용하였다. 더불어, 공여국 내 난민 비용(in-donor refugee costs) 또한 감소하였다. 2024년 공여국 내 난민 수용 관련 지출은 278억 달러로, 2023년 310억 달러 대비 17.3% 줄었으며, 전체 ODA 대비 비중도 14.6%에서 13.1%로 하락하였다. 한편, 2024년 순 부채탕감 지원은 2억 4,100만 달러로, 전년과 유사한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는 최근 신규 채무면제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기존 프로그램 종료 이후 후속 지원이 본격화되지 않은 영향으로 해석된다.

2024년 ODA 실적에서 DAC 회원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국가는 미국으로, 미국의 ODA 지원액은 633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체 DAC ODA의 약 30%를 차지하였다. 그 뒤를 독일(324억 달러), 영국(180억 달러), 일본(168억 달러), 프랑스(154억 달러)가 이었으며, 이들 다섯 국가는 DAC 전체 ODA의 약 69%를 지원하였다.

1) OECD CRS에 대한 설명 및 통계 항목에 대한 설명은 다음의 경로에서 확인 가능: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creditor-reporting-system_22180907.html

2) DAC 비회원국 중 자발적으로 OECD CRS에 실적을 보고한 국가에는 아제르바이잔,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쿠웨이트, 카타르, 루마니아, 아랍에미리트, 이스라엘, 튀르키예, 리히텐슈타인, 몰타, 모나코 등이 있다.

3) 2024년 확정 실적은 2026년 1월 발표 예정이다.

4) 물가 및 환율 등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해 기준 연도 기준으로 조정한 값을 말한다.

5) 증여등가액(grant equivalent)은 ODA 실적 산출 시 유상원조는 전체 금액이 아닌 무상에 해당하는 금액만 반영하고, 무상원조는 전액을 반영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는 공여국 및 기관 간 실질적인 지원 수준을 보다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OECD의 산정 기준으로, 본 브리핑의 실적은 모두 증여등가액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표 1> 2024년 OECD DAC 회원국 ODA 지원 총액

(증여등가액 기준, 단위: 백만 USD)

순위	국가명	지원액	전년 대비증감률(%)
1	미국	63,299	-4.4
2	독일	32,422	-17.2
3	영국	17,991	-10.8
4	일본	16,772	-10.3
5	프랑스	15,423	-0.02
6	네덜란드	7,523	-2.8
7	캐나다	7,240	+0.3
8	이탈리아	6,672	+6.7
9	노르웨이	5,180	+0.6
10	스웨덴	5,007	-13.4
11	스위스	4,603	-4.8
12	스페인	4,350	+9.0
13	대한민국	3,943	+24.8
14	호주	3,319	-0.6
15	벨기에	3,222	+12.2
16	덴마크	3,168	+2.2
17	아일랜드	2,469	-14.0
18	폴란드	2,065	-26.8
19	오스트리아	1820	-9.5
20	핀란드	1408	-12.9
21	뉴질랜드	781	-1.8
22	포르투갈	669	+21.3
23	룩셈부르크	597	-0.3
24	체코	572	-29.1
25	그리스	358	+3.3
26	리투아니아	193	-12.9
27	슬로바키아	191	+3.9
28	헝가리	191	-31.5
29	슬로베니아	164	-2.0
30	라트비아	112	-22.1
31	아이슬란드	112	+1.4
32	에스토니아	83	-26.3

<표 2> 2024년 OECD DAC 회원국 GNI 대비 ODA 지원 비율

(증여등가액 기준, 단위: 백만 USD)

순위	국가명	ODA/GNI(%)
1	노르웨이	1.02
2	룩셈부르크	1.00
3	스웨덴	0.79
4	덴마크	0.71
5	독일	0.67
6	네덜란드	0.62
7	아일랜드	0.57
8	스위스	0.51
9	영국	0.50
10	벨기에	0.48
11	프랑스	0.48
12	핀란드	0.47
13	일본	0.39
14	캐나다	0.34
15	오스트리아	0.34
16	아이슬란드	0.33
17	뉴질랜드	0.32
18	이탈리아	0.28
19	라트비아	0.26
20	폴란드	0.26
21	스페인	0.25
22	포르투갈	0.24
23	리투아니아	0.24
24	슬로베니아	0.23
25	미국	0.22
26	한국	0.21
27	에스토니아	0.20
28	호주	0.19
29	체코	0.17
30	슬로바키아	0.14
31	그리스	0.14
32	헝가리	0.09

또한, G7 공여국인 미국,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의 합산 기여액은 전체 ODA의 약 75%에 달하였으며, DAC-EU 회원국의 기여 비중은 전체의 42%로 집계되었다. 한편, GNI(국민총소득) 대비 ODA 비율 측면에서는 덴마크(0.71%), 룩셈부르크(1.00%), 노르웨이(1.02%), 스웨덴(0.79%) 등 네 개 국가만이 UN 권고치 0.7%를 초과 달성하였다.

2024년 DAC 회원국들의 ODA 실적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32개 회원국 중 10개 국가의 지원액이 증가하였으며, 22개 국가의 지원액은 감소하였다. 증가율 상위 5개국은 한국(24.8%), 포르투갈(21.3%), 벨기에(12.2%), 스페인(9.0%), 이탈리아(6.7%)로, 특히 한국은 DAC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반면, 감소율이 가장 높았던 5개국은 헝가리(-31.5%), 체코(-29.1%), 폴란드(-26.8%), 에스토니아(-26.3%), 라트비아(-22.1%)로 나타났다. 헝가리의 경우 전반적인 ODA 예산 축소가 ODA 지원 감소의 주요 원인이며, 체코, 폴란드, 에스토니아는 자국 내 난민 지원 비용의 감소가 큰 영향을 미쳤다. 라트비아의 경우 난민 비용 감소와 더불어, 2023년에 있었던 백신 공여 실적이 2024년에는 보고되지 않아 실적 감소 폭이 크게 나타났다.

2024년에는 DAC 비회원국 중에서도 두드러진 ODA 실적이 확인되었다. 쿠웨이트는 약 6억 1,660만 달러를 지원하며 Non-DAC 공여국 중 가장 큰 ODA 규모를 기록하였고, 아랍에미리트(약 4억 3,060만 달러), 사우디아라비아(약 3억 6,370만 달러) 등도 일부 DAC 회원국을 상회하는 수준의 지원 실적을 기록하였다. 증감률 측면에서는 쿠웨이트가 전년 대비 1,130.9% 증가하며 예외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2023년 중단되었던 양허성 대출의 재개에 기인한다. 루마니아(+14.2%), 리히텐슈타인(+16.2%) 등은 다자기구 기여 확대 또는 난민 비용 증가를 통해 ODA 규모를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제르바이잔(-40.9%)과 이스라엘(-33.4%)은 자국 내 난민 비용 및 일회성 지원의 감소로 인해 큰 폭의 감소를 보였다.

2024년 한국의 ODA 실적 개요

2024년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총액은 증여등가액 기준으로 39.4억 달러, 순 지출 기준으로는 41.5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DAC 32개 회원국 중 13위를 차지하며 전년보다 순위가 한 계단 상승하였다. 특히 이는 2023년 증여등가액 기준 31.6억 대비 약 24.8% 증가된 실적으로, 2024년 DAC 전체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에 해당한다. 이러한 증가 폭은 DAC 전체 ODA 규모가 7.1% 감소한 상황과 대조되는 결과로, 2024년 ODA 규모가 증가한 10개국 중에서도 한국처럼 양자 무상원조와 유상원조가 동시에 확대된 사례는 드물다. 실제로 다수 국가들은 다자기구에 대한 기여금 축소, 인도적 지원 및 난민 수용 비용 감소 등으로 ODA 실적이 감소한 반면, 한국은 양자 원조 확대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ODA 실질 증가세를 보였다. 또한, 한국의 GNI 대비 ODA 비율은 0.21%로 전년보다 0.04%포인트 상승하였다. 이는 아직 DAC 평균(0.33%)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4년 KOICA ODA 통계 실적

2024년 KOICA의 ODA 지원 실적은 약 8억 8,160만 달러(1조 2,021억 원)로 집계되었다[6]. 이는 2023년 실적인 약 7억 3,152만 달러(9,554억 원) 대비 20.5% 증가한 수치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2024년 전체 한국 ODA 총액 중 KOICA의 지원 실적은 22.4%를 차지해, 한국수출입은행(EDCF)의 10억 6,350만 달러(26.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전체 무상원조 총액 약 27억 7,290만 달러 중에서는 31.8%를 차지하며, 무상원조 실적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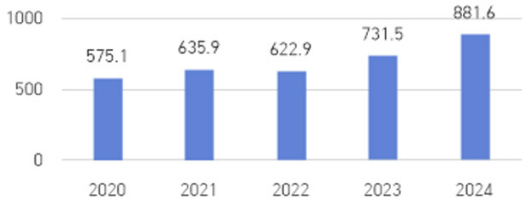
<표 3> 2020-2024 한국 및 KOICA ODA 지원액 및 전년 대비 증감률

(증여등가액 기준, 단위: 백만 USD)

연도	한국 총 ODA (전년대비 증감률)	한국 무상 ODA (전년대비 증감률)	KOICA 지원액 (전년대비 증감률)	KOICA 비중: 총 ODA / 무상 ODA
2020	2,250.00 (-8.6%)	1,408.30 (-3.0%)	575.1 (-10.8%)	25.6% / 40.8%
2021	2,872.50 (+27.7%)	1,765.60 (+25.4%)	635.9 (+10.6%)	22.1% / 36.0%
2022	2,809.50 (-2.2%)	1,874.00 (+6.1%)	622.9 (-2.0%)	22.2% / 33.2%
2023	3,160.30 (+12.5%)	1,992.90 (+6.3%)	731.5 (+17.4%)	23.1% / 36.7%
2024	3,942.50 (+24.8%)	2,772.90 (+39.1%)	881.6 (+20.5%)	22.4% / 31.8%

<그래프 1> 2020-2024 KOICA ODA 지원액 추이

(증여등가액 기준, 단위: 백만 USD)



<표 4> 2024년 한국 주요 기관별 총 ODA 지원 실적

(증여등가액 기준, 단위: 백만 USD)

순위	기관명	지원액	한국 총 ODA 내 비중
1	한국수출입은행(EDCF)	1,063.5	27.00%
2	한국국제협력단(KOICA)	881.6	22.40%
3	외교부	826.5	21.00%
4	기획재정부	531.2	13.50%
5	농림축산식품부	131.2	3.30%
6	교육부	90.1	2.30%
7	산업통상자원부	71.1	1.80%
8	보건복지부	64.4	1.60%
9	농촌진흥청	29.5	0.80%
10	환경부	26.2	0.70%

<표 5> 2024년 한국 주요 기관별 무상 ODA 지원 실적

(증여등가액 기준, 단위: 백만 USD)

순위	기관명	지원액	한국 무상 ODA 내 비중
1	한국국제협력단(KOICA)	881.6	31.80%
2	외교부	826.5	29.80%
3	기획재정부	323.7	11.70%
4	농림축산식품부	131.2	4.70%
5	한국수출입은행(EDCF)	101.3	3.70%
6	교육부	90.1	3.20%
7	산업통상자원부	71.1	2.60%
8	보건복지부	64.4	2.30%
9	농촌진흥청	29.5	1.10%
10	환경부	26.2	0.90%

6) KOICA 집행 실적 중 출연금 집행 실적에 해당한다. 인도적 지원 사업 중 보조금 집행 내역과 국제질병퇴치기금 사업 실적(약 7,016억원)은 외교부 통계로 집계하여 제출한다.

<표 6> 2024년 KOICA 사업유형별 지원 실적

(증여등가액 기준, 단위: 백만 USD)

유형	유형별 총계 (전년 대비 증감률)	유형별 비중
프로젝트	459.95 (+19.4%)	52.10%
국제기구협력사업	130.00 (+163.7%)	11.70%
봉사단	87.44 (+19.1%)	9.90%
행정성경비[7]	84.39 (+22.5%)	9.60%
민관협력사업[8]	60.78 (+21.3%)	6.90%
글로벌연수사업	41.92 (+20.8%)	4.80%
소규모무상원조	23.81 (-45.9%)	2.70%
개발컨설팅	9.52 (+16.2%)	1.10%
개발인식증진[9]	7.99 (-57.2%)	0.90%
인도적 지원[10]	3.37 (-65.0%)	0.40%
총계	**882.18**	**100.00%**

KOICA의 2024년 지원 실적을 사업유형별로 살펴보면, 프로젝트형 사업에 대한 지원이 4억 5,994만 달러로 52.1%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이어서 국제기구협력사업(1억 300만 달러, 11.7%), 봉사단 파견(8,744만 달러, 9.9%), 행정성경비(8,439만 달러, 9.6%), 민관협력사업(6,078만 달러, 6.9%), 글로벌연수사업(4,192만 달러, 4.8%), 소규모무상원조(2,381만 달러, 2.7%), 개발인식증진(799만 달러, 0.9%), 개발컨설팅(952만 달러, 1.1%), 인도적 지원(337만 달러, 0.4%)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증감률을 기준으로 보면, 국제기구협력사업은 1억 300만 달러로 2023년 대비 163.7% 증가하여 가장 큰 폭의 증가를 보였다. 이는 2024년 KOICA의 분쟁·취약국 지원 예산이 2023년 약 335억 원에서 1,233억 원 수준으로 크게 확대되며,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 협력 사업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11].

DAC 지역 구분에 따른 지역별 실적으로는, 아시아 지역에 대한 지원이 3억 6,736만 달러(41.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어서 아프리카 지역 2억 8,214만 달러(32.0%), 아메리카 8,341만 달러(9.5%), 오세아니아 2,075만 달러(2.4%), 유럽 836만 달러(0.9%) 순으로 지원이 이루어졌다. 국가와 지역을 특정하기 어려운 개발인식증진, 행정성경비 등의 지원 내역은 '기타 지역'으로 분류하며, 해당 지원 금액은 1억 2,016만 달러(13.6%)로 집계되었다.

한편, 국가 단위로는 총 125개국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이 중 상위 15개국이 전체 실적의 약 39%를 차지하였다. 베트남이 4,212만 달러(4.78%)로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았으며, 이어 캄보디아(2,865만 달러, 3.25%), 라오스(2,833만 달러, 3.21%), 에티오피아(2,584만 달러, 2.93%), 필리핀(2,569만 달러, 2.91%) 등이 주요 수원국으로 나타났다.

<표 7> 2024년 KOICA 지역별 지원실적

(증여등가액 기준, 단위: 백만 USD)

지역명		지원액	비율
아시아	중동	65.12	7.40%
	서남 및 중앙아시아	111.29	12.60%
	극동 아시아	179.99	20.40%
	아시아 미배분	10.95	1.20%
아시아 합계		367.36	41.70%
아프리카	사하라 이북	23.4	2.70%
	사하라 이남	227.3	25.8%
	아프리카 미배분	31.45	3.60%
아프리카 합계		282.14	32.00%
아메리카	카리브해	8.7	1.00%
	중앙아메리카	14.53	1.60%
	남아메리카	57.25	6.50%
	아메리카 미배분	2.92	0.30%
아메리카 합계		83.41	9.50%
오세아니아	폴리네시아	2.09	0.20%
	미크로네시아	1.83	0.20%
	멜라네시아	16.83	1.90%
오세아니아 합계		20.75	2.40%
유럽		8.36	0.90%
기타		120.16	13.60%
총합계		**882.18**	**100%**

<표 8> 2024년 KOICA 국가별 지원실적 - 상위 15개국

(증여등가액 기준, 단위: 백만 USD)

순위	국가명	지원액	비율
1	베트남	42.12	4.78%
2	캄보디아	28.65	3.25%
3	라오스	28.33	3.21%
4	에티오피아	25.84	2.93%
5	필리핀	25.69	2.91%
6	탄자니아	23.92	2.71%
7	콩고민주공화국	22.16	2.51%
8	우간다	20.72	2.35%
9	몽골	20.18	2.29%
10	우즈베키스탄	19.26	2.18%
11	키르기스스탄	18.76	2.13%
12	인도네시아	18.53	2.10%
13	스리랑카	17.00	1.93%
14	르완다	16.83	1.91%
15	가나	16.00	1.81%

7) 인건비, 경상비, 해외사무소 운영비 등을 포함한다.

8) 혁신적 개발협력 사업과 시민사회 협력 사업을 포함한다.

9) 홍보 비용, 연구 조사 비용 등을 포함한다.

10) 재난 및 위기 상황의 구호 및 복구 지원 등의 활동을 포함한다.

11) KOICA. (2024.05.10). "지구촌 분쟁 및 취약 지역 지원 날개 달았다 - 코이카, 올 들어 8개 국제기구와 MOU 체결". 보도자료. https://www.koica.go.kr/koica_kr/990/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a29pY2Ffa3lIMkYxNTElMkYzODU2MTclMkZhcnRjbFZpZXcuZG8lM0Y%3D

나가며

2024년 ODA 실적은 국제사회의 공여 여건 변화 속에서도 한국의 뚜렷한 증가세가 돋보인 한 해였다. 글로벌 ODA 총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가운데, 한국은 양자·다자 원조 전반에서 적극적인 확대를 보이며 DAC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특히 KOICA의 집행 실적은 최근 5년간 가장 큰 폭의 증가를 보이며, 다양한 협력 분야와 지역으로 지원을 확장하면서 한국 ODA 확대를 견인하는 핵심 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2024년 확정통계는 각 제출 기관의 수정자료가 2025년 7월 중순까지 제출된 후, OECD와 공여국 간의 검토·조정을 거쳐 2025년 하반기 중 작성되며, 2026년 1월 중순 최종 2024년 확정 통계가 발표될 예정이다.
본 브리핑 작성에 활용된 ODA 통계 데이터는 아래의 경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26년 1월 발표 예정인 2024년 ODA 확정 통계 또한 동일한 경로를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 OECD ODA 통계 : OECD Data Explorer (https://data-explorer.oecd.org/)
- 대한민국 ODA 통계 : ODA 통합누리집 (www.odakorea.go.kr)
- KOICA ODA 통계 : KOICA 오픈데이터포털 (https://www.oda.go.kr/)

[참고문헌]

- OECD. 2025. Preliminary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Levels in 2024 - Detailed Summary Note. Paris: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Directorate.
- OECD. 2025. DCD(2025)6: Preliminary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Levels in 2024. Paris: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Directorate.
- 외교부. 2025.「2024년 ODA 잠정통계 주요 내용」, 주OECD대한민국대표부. https://overseas.mofa.go.kr/oecd-ko/brd/m_20808/view.do?seq=136